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6호 【무게 제25014호】 주제 104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더 큰 생산적양양을 일으키자

원썩격멸의 기상 세차게 내려친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전진의 불기둥을 일으키는 원수
들을 단애에 요정별 멸종의 기
상이 내리치는 속에 눈부신 공
사성과 이룩되고있다.

종합된 자로의 의하면 미래과
학자거리 2단계건설의 주라격
대상인 총살및내부미장방
은 지금 85%예산을 넘어섰다.
79-가, 나, 다호동과 84-
가, 나호동, 85호동을 비롯한
살림집건설을 맡은 여러 단위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건물의 외
부미장공사를 전부 끝내고 외벽
타일붙이기와 창문드러기를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건설장적으로 매일 2만㎡
에 달하는 살림집내부미장실적
이 기록되는 속에 성패는 공공건
물건설장에서도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
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
는 만민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
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
업입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별
채진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은
정세물 극도로 긴장시키는 적들
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 인민들
에겐 믿음의 신심을 안겨주는
격렬한 전투장으로 되고있다.

시공단원별로 력발매치와 건
설기계 및 공사자재확보, 수송

에 이르는 모든 건설작업이 기
동적으로 펼쳐지고 건설자대중
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적인 포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시공단원들
에서는 수령팔십이정기와 혼합
물수송차, 작업승강기, 강제식
혼합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건설
기계의 가동률을 부쩍 높여
내외부미장과 타일붙이기공사
를 끊임없이 확대하고있다. 조
선인민군 백일남속부대와 조
선인민내무군 요정수
속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 지원관, 전
투원들은 원수들을
대한 치솟는 적기심
을 안고 통이 큰 인민
을 벌려 최단기간에
살림집건설을 전부
끝낼 수 있는 전방을
열어나가고있다.

모든 시공단원들
에서는 발판과 바줄, 다
양한 기공기를 자체
로 확보하고 미장작
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설장적인 하루 미
장실적을 최고 2만 4
천㎡수준에 끌어올리
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여러 단위 지원
관, 전투원들의 양양
된 기세속에 건설장

적인 건물내외부미장실적은 시
간이 갈수록 뛰어들고있다.

한편 79-다호동살림집과
85호동살림집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물들은 지금 미장공
사가 전부 끝나고 창문드러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모든 단위 군인들과 건설자
들은 드센 창조와 마치로 원수
들에게 무지한 징벌을 안기
는 심정으로 건설장도판리와
지대정리작업도 다그쳐 현장의

면모를 하루가 다르게 일신시
키고있다.

건설현장지휘부에서는 며칠안
으로 모든 건물들의 미장공사와
외벽타일붙이기를 전부 완
성할 목표에 공사조직과 지도
를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시공단원 군인들과 건설자
들, 편만단위 일군들과 로동계
급의 혁명적열의속에 건설장
에서 원수격멸의 기상은 더욱 세
차게 내려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지원 철
사인 본사기자 림 학락

전선에서 만나자

◇은 나라가 하나의 큰 전선처럼 화하였다.
전선은 생각을 평가하는 결정장이다. 미제
와 남조선피괴매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행
으로 위협당한 정세가 조성된 이 시각 우리
천만군민모두는 최후결전에 산악같이 떨쳐
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보위는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생활이
꽃피고있는 요양원 사회주의조국을 지키
고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보루를 수호하기
위한 영웅은 임무입니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면합투대의 인민군장병
들이 열적의 서리발총을 억세게 틀어쥐고 전
선상태에 들어갔으며 황해북도와 강원도를 비
롯한 전선지대에서는 언제든 승리의 전격
을 열어나갈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었다.
뿐만아니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
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건
보도가 전해진 하루동안에만도 100여만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하였고 한
순에는 낮과 미지를, 다른 한순에는 조국수호의
총대를 추켜든 전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
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일대 생산
적양양을 일으키면서 결전의 시각을 한층조기
화시키고있다.

매는 왔다. 그 누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개나발을 붙이대는 원수놈들에게 남은것은 오직
하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한 징벌뿐이다.
◇원수격멸의 의지가 부굴부굴 끓고있는 내
조국의 하늘가에 노래 《전선에서 만나자》가 힘
차게 울리고있다.

각지에서 앞을 다투어 진행되는 탄원도임을
에서도 이 노래가 힘차게 울려나왔으며 서울도
는 총장이 원수들을 겨는 최전연초소에서도

이 노래가 8월의 주제가마냥 메아리치고있다.
지금 그 어디에서나 제일먼저 우렁차게 울려나
오는 이 노래에는 조국을 제일로 사랑하고 목
숨바쳐 지키려는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애국
열, 원수들과는 오직 총대로 결단하겠다는 투철
한 계급의식적 열의가 맥맥히 비껴있다.

항구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를 부르
며 배세라지고있다.

우리 모두 전선에서 만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후승리의 보고를
드려라!

◇탄원군의 심장마다에서 울려나오는 결사
용위, 조국수호의 대항상은 백복만반도 더 강
하다.

《김정은장군 목적으로 사수하리라》, 《혁
명의 수비로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수령실용
의 노래들과 《조국보위의 노래》, 《전진도 전
군》, 《대한로병의 노래》와 같은 1950년대의
전사가요들, 《전선에서 만나자》,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내가 지키건 조국》과 같은 조국
수호의 노래들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극약
무도한 원수의 무리들을 즉량처벌할 혁명적열
의를 백배해주고있다.

이제 세계는 최초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떨치
는 결사용위의 노래, 조국수호의 대항상의 위력
이 어떤것인가를 푼다로 알게 될것이다.

백두의 뿔에서 메아리친 항일의 혁명가요
들이 조국해방의 위대한 사명을 온 세상에 전하
는 한호성으로 이어진것처럼, 1950년대의
전사가요들이 조국해방전쟁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만세소리로 울려 퍼진것처럼 오늘 우리 천만군
민은 수령김정일동지의 노래, 조국수호의 대항상
을 심장가로 부르며 이 땅에서 김정은시대의
장대한 승리를 불러오고있다.



수천척 지하마장들에 울리는 증산의 포성 석탄공업부문 각지 탄광들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각지 탄광들에서 석탄증산
을 믿음있게 담보하는 뚜렷한
결전성과를 이룩해가고있다.

석탄공업성적으로 종합된 자
로에 의하면 각지 탄광들에서
올해 7월까지의 기간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기본결전,
준비결전실적씩 각각 112%
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각지 탄
광공작도, 굴진소대원들이 지
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천
m를 더 굴진한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
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정을 향하여 힘차게 달
러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
군 최고사령부 건보도에 걸린
석탄공업성적의 일군들과 정투원
들이 비상한 각오를 안고 굴진
을 앞세워 더 많은 예비채탄장

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
으로 내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에서는
각지 탄광연합기업소들과의 긴
밀한 관계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
에 맞게 고속도굴진전략을 강
화하는데 모든 각지 탄광에서 석
탄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기
본요리의 하나인 기동결전실적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힘을 넣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
들에서는 전하의 나날 군사리로
동계급이 발휘하고 정식으로 결
전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집중적
인 사상공세를 펴고있다.

사부지구의 탄광연합기업소
들에서 조선속도창조투쟁의 열
을 높이는 7월까지의 높은 결전실
적을 기록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원수격멸의 기상안고 막강마다
에서 전격의 발파소리를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는 어머니수령님의 형적소리를
철저히 편취하여 굴진을 석탄생
산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투
쟁으로 일군들과 굴진공들을 불
려일으켜 기업소안의 모든 고속
도굴진, 굴진소대에서 상반년
과 7월 결전계획을 수행하는
집단적열의를 창조한 승리의 기
세를 드높이 굴진성과를 계속 확
대해가고있다. 평탄탄광 대성개
명지구 채탄구역이 형성된대 맞
게 석탄생산중비에 박차를 가하
고있다. 남양탄광에서는 고속도
굴진소대비중을 증진에 비해

5% 높임으로써 뚜렷한 결전성
과를 이룩하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에서는 청신적성파가 이룩되
용작도공사를 비롯한 탄광에서
서 버려온반의 다양화를 실현하
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으면서
청신-성산천천전호흡식배수정
공사에서 청신적성파가 이룩되
도록 청년동맹대원들을 적극
어려움으로 대하였다. 지난 7월 25일
청신-성산천천전호흡식배수정
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던
55상정공을 관통함으로써
빠른 시일안에 공사를 끝내고
연합기업소탄광들의 석탄생
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북상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는 당정책의 요구대로 청년동
맹대원들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선진과학기술을 결전작업에 적
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자
고고에 진행하여 탄광들의 주요
전망굴진대상 공사속도를 최
대한으로 높이고있다.

당위대한지도의 지도밑에 특
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굴진을
앞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적인 사회주의경쟁총
화에 비롯한 각지 탄광 청년동
맹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각지 탄광 고속도굴진소대 굴
진공들과 청년동맹대원들이 수
천척지하마장마다에서 원수격
멸의 기상안고 마구리랑 굴진실
적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남덕탄광 김영민고속도굴진
본사기자 강명천

청진강재공장에서

원수격멸의 기상 차년치는
정진강재공장에 혁신의 불기둥
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생각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은 새 기술을 받아들여 많은
량의 석탄을 절약하면서 더
총진보다 각강가열시간을 줄
이므로써 8월 20일까지 연간
정진강재생산계획을 140%로
넘어 넘어서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넘과 기
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
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
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웅적인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사

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발달하고 공장에서는 년초부터
정진강재생산계획을 높이 세우
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줄
기까지 밀려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일
군들은 오늘의 자력경쟁은 현
대적과학기술을 기조한 자력
경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생산
공정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았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각강가열시간을 줄
이기 위하여 지난 시기 버리
던 열을 다시 회수이용할수
있는 열순환식연속가열로를
청진강재생산에 도입하기 위
한 전투에 달려나왔다. 설계를
앞세우면서 열순환식연속

가열로를 일떠세우는데서 나
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서
로의 집체적지혜를 합쳐 풀
어나가며 구조물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책임기사 리호진동
무를 비롯한 공장기술진단은
해당 부문 전문가들과의 관계
밑에 열순환식연속가열로
설달동안에 일떠세우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청진강재생
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공장에서서는 과학기술보급
실업은 정상화하면서 대
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더
욱 세차게 라라라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혁신이 생산
에서 큰 온을 내도록 하였다.
유도로직장의 로동자들은
새 기술혁신을 생산자적
구 반아들며 매일 각강재생
산계획을 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공무직업단
원들은 설비들에 정중하고 그
어떤 소제도 가공할수 있는 합
리적인 방법들을 창안하여 육
중한 압연물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강재 공장에서선 년간 청
진강재생산계획을 4개월이나
앞당겨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남조선피괴군부
장재들을 유도로의 쇠물
에 처넣는 실정에서 열강재
산에서 열일 혁신을 일으키
려고 하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총진굴의 불기둥이 년간계획 넘쳐 수행

원수격멸의 기상 차년치는
정진강재공장에 혁신의 불기둥
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생각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은 새 기술을 받아들여 많은
량의 석탄을 절약하면서 더
총진보다 각강가열시간을 줄
이므로써 8월 20일까지 연간
정진강재생산계획을 140%로
넘어 넘어서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넘과 기
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
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
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웅적인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사

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발달하고 공장에서는 년초부터
정진강재생산계획을 높이 세우
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줄
기까지 밀려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일
군들은 오늘의 자력경쟁은 현
대적과학기술을 기조한 자력
경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생산
공정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았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각강가열시간을 줄
이기 위하여 지난 시기 버리
던 열을 다시 회수이용할수
있는 열순환식연속가열로를
청진강재생산에 도입하기 위
한 전투에 달려나왔다. 설계를
앞세우면서 열순환식연속

가열로를 일떠세우는데서 나
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서
로의 집체적지혜를 합쳐 풀
어나가며 구조물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책임기사 리호진동
무를 비롯한 공장기술진단은
해당 부문 전문가들과의 관계
밑에 열순환식연속가열로
설달동안에 일떠세우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청진강재생
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공장에서서는 과학기술보급
실업은 정상화하면서 대
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더
욱 세차게 라라라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혁신이 생산
에서 큰 온을 내도록 하였다.
유도로직장의 로동자들은
새 기술혁신을 생산자적
구 반아들며 매일 각강재생
산계획을 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공무직업단
원들은 설비들에 정중하고 그
어떤 소제도 가공할수 있는 합
리적인 방법들을 창안하여 육
중한 압연물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강재 공장에서선 년간 청
진강재생산계획을 4개월이나
앞당겨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남조선피괴군부
장재들을 유도로의 쇠물
에 처넣는 실정에서 열강재
산에서 열일 혁신을 일으키
려고 하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조국이어, 우리를 화신병사로
불러라. 한순에는 낮을, 다른
한순에는 총을 들고 남조선피
괴군부장재들을 씨종자도 없
이 제거하자!

파일수확이 한창인 각지 파
수농장에서 증오와 분노의 활
화산이 거세차게 폭발하고있다.
결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
후승리를 얻어오려는 각지 파수
농장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와 의지, 그리고 평화의
고향을 짓고자 하는 열의와 의
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살해공작을 하여 우리 나라에
서 전진위업은 날로 더욱 커
고있습시다.》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원수의 아성을 총두리쳐 끌어

각지 파수농장들에서
이 그대로 육안이 되어 원수들
을 박살낼 심정으로 파일수확
을 마칠때까지 파일수확에
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원수에 짓지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군부호전장들의 소굴을
불마라도 만들 기세로 파일수
확에서 매일, 매 시각 혁신을 창조
하고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 단
위들의 근로자들만일까.

장면파수농장에서도 복수
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
오르고있다.

원수들이 그 어디에 숨어있
는지 끝까지 찾아내어 무조건
적멸소탕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그러므로 파일수확투쟁에 비
교되었다. 열적의 기상안고 프
락트를 힘차게 붙이려는 온전수
확도, 파일을 운반하고있는 근로
자들도 원수들을 단애에 때려
잡을 심정으로 가슴을 끓이고

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파일을 수확한 기세로 계속 힘
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은 황
추파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
들의 가슴속에서도 세차게 타
오르고있다. 이들은 끝없이 솟
아나는 격분과 지를 때려 영
군들로부터 열을 불어내며 파
일을 수확하는것으로 원수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릴 결
심에 굳건한 이들은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전투장
을 떠나지 않고있다. 북부
의 일군이 용
담처럼 뛰어넘는 속에 22일
하루동안에만도 수십의 파
일을 수확하는 성과가 이
룩되었다.

원수파수농장을 비롯한 각지
파수농장들의 일군들과 근로
자들도 치솟는 분노와 복수
심을 안고 파일수확을 힘차
게 다그
치고
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빛내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



↑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4(2015)년 3월
←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4(2015)년 4월



전략잠수함 란도란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한테 대하여 대민족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4(2015)년 5월



신형반함선로켓시험발사를 보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4(2015)년 2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1(2012)년 8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3(2014)년 7월



인민군부대들의 연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3(2014)년 11월



군종라격훈련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4(2015)년 1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3(2014)년 10월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1(2012)년 2월



명포수들로 자라난 용도방어대 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주제103(2014)년 7월

력사는 침략자, 도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기록하게 될것이다

(㉑) 분노의 분화구를 던지자

이제 머는 참을수 없다
이제 머는 용서할수 없다
백두산이 노성을 더했다
조국이며
무자비한 보복의 분화구를 던지자

우리의 아령에
악랄한 도발로 깔질한 놈들
우리의 인내력에
동족대결의 화염으로 도전한 놈들

원썩들이 쓰이던 포탄은
행복과 희망으로 부풀
우리 가슴팍을 향하겠고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를 겨누겠고
우리 삶의 터전을 파헤쳐 버렸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대결광신자들을 짓통개며
한나산으로 단숨에 치달아오를
무비철강들이 발을 구른다
달아오른 총대들이 몸부림친다

오, 열혈의 청춘들이
입대청원서에 총탄같은 수포를 한다
아들과 남편과 애인을 최전선에 세운
이 나라 너인들도 그들곁에 세워주길
타래째 호소한다

최 남 순
분노와 증오와 복수로 말아오른
천만의 심장과 심장들이 그대로 폭탄
인줄
가변한 원썩들이 어찌 알랴
그래서 반드시 이기리라는것을
치졸한 원썩들이 그 어찌 알랴

이제는 상처남길 자리조차 없는
70년 분렬사에 용이리진 고통을
오로지 멸적의 포신으로 쫓자
그 이름의 세월들을 불꽃으로 쫓자
동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민족의 목숨같은 녀념을 후련하게 몰자

우리 아이들의 웃음비진
육아원과 예육원의 밝은 창가를 위해
미배과학자거리의 행복한 입사식을 위해
10월의 성대한 열병식을 위해
조국이며, 최후승리를 위해 다져온
막강한 국력을 백두의 활화산으로
미치자

위대한 김정은장군 만세!
목청껏 웨칠 통일광장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만대의 번영을 위해
일심단결된 인민이며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자!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

(㉒) 결전의 시각은 왔다!

적결!
분노의 격발기를 당기며
이 가슴 후련히 퍼붓고야말
멸적의 탄알을 만장만하고
병사는 방아쇠에 손을 걸었다

우리의 물도 없는 생명인
조국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며
우리의 살점인 신성한 내 나라 강토에
함부로 무모하게 불뿔을 날린
전쟁미치광이들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까지

황 명 성
미세물 등에 업고 날뛰는 괴뢰역적들
네놈들의 도발은
전쟁을 불사한 선전포고

못 참아
이제 머는 못 참아
긴건 세월 참고참아온
복수의 용어리를 용암처럼 던지며
원수적멸의 성전에 우리 나섰다

침대로 용서치 않으리
성스러운 50년대 전하의 용사들이
공화국이 펴낼 날이며

남정의 김 노도처 달려갔듯이
폭풍쳐가리라 최후성전의 길로

최고사령관동지 그어주신
승리의 붉은 화살표파라
태백의 준병들을 날아넘어 대적으로
략동강의 불모래를 군화발에 밟으며
부산으로
침략의 불을 지른 악마의 무리들을
씨종자도 없이 격멸소탕하리라

위력한 선군의 총대앞에

(㉓) 불 버락 러 치 자

김 남 호
이 땅의 거센 백두
꿈에도 통일을 원하며
거머의 숙원을 목매어 부르던 이 땅이
머는 참을수 없는
분노의 장정을 뽑아든것이다

불을 뿜는 대지!
노도지는 정벌의 대하!
이제 더 원수를 살려내
새남을 맞을수 없고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볼수 없나니

들뚝자
무자비한 섬멸의 포화를
하늘에서
당에서
바다에서
원수의 머리우에 불벼락 던지자
피의 등지를 뿌리세 뒤엎자

오, 백두산대국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이 계시어 최후승리는 우리의것!
백송의 가지따라 돌진하는 앞길에
통일삼천리가 달려온다
파도쳐 달려온다

산도
강도
땅도
하늘도
남으로! 남으로!
하나의 의지로 뭉치어 뻗치는

(㉔) 승리로 보여 주리라

신 문 경
아마도
이미 러졌더라면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매일이 벌어지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은
이런 엄청난 포사격도발을 발생시킨
본원인이다.

괴뢰들은 말로는 《대화》에 대해 미
들어대면서도 최근에는 대결과 전쟁을
추구해왔다. 최근의 몇가지 사실도 그
것을 말해준다.

올해 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그 누구의
《봉기》를 때려치우면서 대조선적대
시정책을 강화하자 남조선괴뢰들은 그
적극 편승해나섰다.

괴뢰들이 벌여놓은 독자적인 《대북
미제》 농담과 인간선배기들을 무주거
제 미치지 못했는가 반공화국대결정책
들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아
니라 대결과 전쟁을 피하면서 동족을
모해안살하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는
괴뢰적대결의 흉악한 계획을 잘 보여
주고있다.

지금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갑
행하고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은 그 어떤 《양면적목적》의
연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
을 노린 극히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이다.
이 전쟁연습을 교양에 둔 시점에서
대결의 《지뢰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이
어 연습이 정점에 달하면 바로 그 시기에
《북포탄발사》 사건이 러겠다.

괴뢰들의 엄청난 반공화국도발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결전짓는 걸로 무서히 대할수 없다. 우
리에게 도발을 걸고 사태를 악화시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을 위한 전면전쟁으로 전환시키려
는것이 괴뢰배당의 악랄한 술책이다.

우리를 겨냥한 무장도발의 강행이후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미리 짜놓은
《공공국제도발대결계획》에 따른 연합
작전체제를 가동시키고있는 사실도 그
것을 짐증해 주고있다. 그러나 괴뢰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면서 북침전쟁도
발에 판분하는 미국과 괴뢰적대결에 대
한 치사는 증오와 복수성을 천백배로 폭
발시키고있다.

도발자들에게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벌의지는 하늘에 닿고있다. 이제 당
장이라든가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하고야말려는것이 천만민국의 확고
부동한 의지이다.

도발자들의 말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것을 세계는 독특히 보게 될것이다.
박 철 준

사태를 폭발국면으로 몰아간 무장도발

지금 군사분계선안에서는 위기일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오늘의 엄청난 사태를 몰아간 도발의
장본인은 남조선괴뢰들이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4일 비무
장지대에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이
발생한 후 괴뢰들은 그것을 구실로 반공
화국적비도발정책을 재개하는 망동을 부
렸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지난 20일
《북포탄발사》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
실로 아군인경호소동들을 향해 수십발의
포탄을 날리는 무장도발행위까지 감행해
나섰다.

괴뢰들의 이러한 정치군사적도발망동
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 신성한 공화국
영토를 노린 괴뢰적 침략행위이며 북
침전쟁개시를 위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문제는 괴뢰들이 아직까지 사태의 심
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도발행위
를 정당화하면서 긴장격화의 책임을 어
떻게 하나 우리에게 넘겨쳐워보고자 발
광하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취하는 전
선임을 이겼수 없으며 도발자로서의 괴
뢰들의 우악한 정세는 그 무엇보다도 가
리울수 없다.

총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저
들의 범죄적목적에 악용하는것은 괴뢰들
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세계전쟁사에는 침략자들이 승방이
본성을 가리우기 위해 앙갚음을 쓰고
괴뢰지침을 둔갑해나선 실례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남조선괴
뢰들이 벌여놓은 침략행위의 몰락대가 되
어 통증을 헤치기 위해 그 무슨짓도 가
리지 않는 모략과 남조선의 농수, 회세의
대결미치광이들은 찾아보지 힘들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폭
발》 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이 우리의
편안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던 괴
뢰들은 한주일만에 입장을 바꾸고 다
짜고짜 《북소행》 설을 광고해나섰다.
하지만 괴뢰배당이 《북소행》 설을 립
중하는 통화상은 내놓지도 못하고
《몰적증거》라고 하면서 들고나온것
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 유죄가 짜인
없는것으로서 여론의 조소와 비난만
자아냈다.

《북포탄발사》 사건이라는것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괴뢰군부장관들이 북에
서 날아왔다는 포탄이 고사포탄인지,
로켓포탄인지, 직사포탄인지 똑똑히 알
지 못해 오라카락하고 그들의 발사지
점도 락한지점도 확인하지 못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의 현치주인
들도 북에서 포탄이 날아오는것을 목
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이것은
괴뢰들이 때들어대는 《북포탄발사》
사건이라는것이 얼마나 허황한것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여론들은 괴뢰들의 도발소동이 몇몇
조선서해에서 발생했던 《현안》 호사
건, 연평도사건과 유사하다는데 대해 주
목하고있다.

2010년 3월 《현안》 호사건을
조작한 남조선괴뢰들은 뺨뺨스럽게도
그 무슨 《북이외교각》에 대해 떠들며
무리없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과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차단
하는 극단적인 대결조치를 공포하였
다. 그해 11월에는 연평도에서 우리의
명함에 함부로 포탄을 날리며 도발소
동에 미처나들지 못했던 정벌세대를 받
았다.

남조선괴뢰들이 모략적인 《지뢰폭
발》 사건을 구실로 반공화국적비도발
충을 재개하고 있지 않은 《북포탄발
사》에 대해 떠들며 아군인경호소동에

이제 머는 참을수 없다
이제 머는 용서할수 없다
백두산이 노성을 더했다
조국이며
무자비한 보복의 분화구를 던지자

우리의 아령에
악랄한 도발로 깔질한 놈들
우리의 인내력에
동족대결의 화염으로 도전한 놈들

원썩들이 쓰이던 포탄은
행복과 희망으로 부풀
우리 가슴팍을 향하겠고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를 겨누겠고
우리 삶의 터전을 파헤쳐 버렸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대결광신자들을 짓통개며
한나산으로 단숨에 치달아오를
무비철강들이 발을 구른다
달아오른 총대들이 몸부림친다

오, 열혈의 청춘들이
입대청원서에 총탄같은 수포를 한다
아들과 남편과 애인을 최전선에 세운
이 나라 너인들도 그들곁에 세워주길
타래째 호소한다

우리의 물도 없는 생명인
조국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며
우리의 살점인 신성한 내 나라 강토에
함부로 무모하게 불뿔을 날린
전쟁미치광이들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까지

남정의 김 노도처 달려갔듯이
폭풍쳐가리라 최후성전의 길로

최고사령관동지 그어주신
승리의 붉은 화살표파라
태백의 준병들을 날아넘어 대적으로
략동강의 불모래를 군화발에 밟으며
부산으로
침략의 불을 지른 악마의 무리들을
씨종자도 없이 격멸소탕하리라

위력한 선군의 총대앞에

김 남 호
이 땅의 거센 백두
꿈에도 통일을 원하며
거머의 숙원을 목매어 부르던 이 땅이
머는 참을수 없는
분노의 장정을 뽑아든것이다

불을 뿜는 대지!
노도지는 정벌의 대하!
이제 더 원수를 살려내
새남을 맞을수 없고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볼수 없나니

들뚝자
무자비한 섬멸의 포화를
하늘에서
당에서
바다에서
원수의 머리우에 불벼락 던지자
피의 등지를 뿌리세 뒤엎자

오, 백두산대국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이 계시어 최후승리는 우리의것!
백송의 가지따라 돌진하는 앞길에
통일삼천리가 달려온다
파도쳐 달려온다

산도
강도
땅도
하늘도
남으로! 남으로!
하나의 의지로 뭉치어 뻗치는

아마도
이미 러졌더라면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매일이 벌어지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은
이런 엄청난 포사격도발을 발생시킨
본원인이다.

괴뢰들은 말로는 《대화》에 대해 미
들어대면서도 최근에는 대결과 전쟁을
추구해왔다. 최근의 몇가지 사실도 그
것을 말해준다.

올해 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그 누구의
《봉기》를 때려치우면서 대조선적대
시정책을 강화하자 남조선괴뢰들은 그
적극 편승해나섰다.

괴뢰들이 벌여놓은 독자적인 《대북
미제》 농담과 인간선배기들을 무주거
제 미치지 못했는가 반공화국대결정책
들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아
니라 대결과 전쟁을 피하면서 동족을
모해안살하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는
괴뢰적대결의 흉악한 계획을 잘 보여
주고있다.

지금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갑
행하고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은 그 어떤 《양면적목적》의
연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
을 노린 극히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이다.
이 전쟁연습을 교양에 둔 시점에서
대결의 《지뢰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이
어 연습이 정점에 달하면 바로 그 시기에
《북포탄발사》 사건이 러겠다.

괴뢰들의 엄청난 반공화국도발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결전짓는 걸로 무서히 대할수 없다. 우
리에게 도발을 걸고 사태를 악화시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을 위한 전면전쟁으로 전환시키려
는것이 괴뢰배당의 악랄한 술책이다.

우리를 겨냥한 무장도발의 강행이후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미리 짜놓은
《공공국제도발대결계획》에 따른 연합
작전체제를 가동시키고있는 사실도 그
것을 짐증해 주고있다. 그러나 괴뢰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면서 북침전쟁도
발에 판분하는 미국과 괴뢰적대결에 대
한 치사는 증오와 복수성을 천백배로 폭
발시키고있다.

도발자들에게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벌의지는 하늘에 닿고있다. 이제 당
장이라든가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하고야말려는것이 천만민국의 확고
부동한 의지이다.

도발자들의 말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것을 세계는 독특히 보게 될것이다.
박 철 준

머는 숨어 피할길 없는 역적의 족속들
머는 살아숨쉴 곳 없는 민역의 배당들
머모토고 신불질한 망동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오늘에 결산하리라, 죽음을 주리라

오, 나는 통일의 열병광장에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릴
위대한 김정은장군의 병사
꺼꾸리진 적들의 아성을 군화발로 던고
결전의 포연 걷히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향해
원수의 종말을 소리높이 선언하리라!

이 세상 누가 묻거든
내 대답해주마
역적의 씨종자는 불로만 다스려야 하고
가장 귀중한것은 총대로만 얻을수
있음!

분노란 이 손에 잡히는것 모두가
총탄같고 포탄같은 이 땅
내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것이
나와 함께 불덩이로 달아오른
조국수호의 결전전야

이 세상 누가 묻거든
내 대답해주마
역적의 씨종자는 불로만 다스려야 하고
가장 귀중한것은 총대로만 얻을수
있음!

분노란 이 손에 잡히는것 모두가
총탄같고 포탄같은 이 땅
내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것이
나와 함께 불덩이로 달아오른
조국수호의 결전전야

분노의 분화구를 던지자

우리의 아령에
악랄한 도발로 깔질한 놈들
우리의 인내력에
동족대결의 화염으로 도전한 놈들

원썩들이 쓰이던 포탄은
행복과 희망으로 부풀
우리 가슴팍을 향하겠고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를 겨누겠고
우리 삶의 터전을 파헤쳐 버렸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대결광신자들을 짓통개며
한나산으로 단숨에 치달아오를
무비철강들이 발을 구른다
달아오른 총대들이 몸부림친다

오, 열혈의 청춘들이
입대청원서에 총탄같은 수포를 한다
아들과 남편과 애인을 최전선에 세운
이 나라 너인들도 그들곁에 세워주길
타래째 호소한다

우리의 물도 없는 생명인
조국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며
우리의 살점인 신성한 내 나라 강토에
함부로 무모하게 불뿔을 날린
전쟁미치광이들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까지

머는 숨어 피할길 없는 역적의 족속들
머는 살아숨쉴 곳 없는 민역의 배당들
머모토고 신불질한 망동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오늘에 결산하리라, 죽음을 주리라

오, 나는 통일의 열병광장에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릴
위대한 김정은장군의 병사
꺼꾸리진 적들의 아성을 군화발로 던고
결전의 포연 걷히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향해
원수의 종말을 소리높이 선언하리라!

이 세상 누가 묻거든
내 대답해주마
역적의 씨종자는 불로만 다스려야 하고
가장 귀중한것은 총대로만 얻을수
있음!

분노란 이 손에 잡히는것 모두가
총탄같고 포탄같은 이 땅
내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것이
나와 함께 불덩이로 달아오른
조국수호의 결전전야

이 세상 누가 묻거든
내 대답해주마
역적의 씨종자는 불로만 다스려야 하고
가장 귀중한것은 총대로만 얻을수
있음!

분노란 이 손에 잡히는것 모두가
총탄같고 포탄같은 이 땅
내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것이
나와 함께 불덩이로 달아오른
조국수호의 결전전야

분노의 분화구를 던지자

우리의 아령에
악랄한 도발로 깔질한 놈들
우리의 인내력에
동족대결의 화염으로 도전한 놈들

원썩들이 쓰이던 포탄은
행복과 희망으로 부풀
우리 가슴팍을 향하겠고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를 겨누겠고
우리 삶의 터전을 파헤쳐 버렸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대결광신자들을 짓통개며
한나산으로 단숨에 치달아오를
무비철강들이 발을 구른다
달아오른 총대들이 몸부림친다

오, 열혈의 청춘들이
입대청원서에 총탄같은 수포를 한다
아들과 남편과 애인을 최전선에 세운
이 나라 너인들도 그들곁에 세워주길
타래째 호소한다

우리의 물도 없는 생명인
조국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며
우리의 살점인 신성한 내 나라 강토에
함부로 무모하게 불뿔을 날린
전쟁미치광이들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까지

머는 숨어 피할길 없는 역적의 족속들
머는 살아숨쉴 곳 없는 민역의 배당들
머모토고 신불질한 망동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오늘에 결산하리라, 죽음을 주리라

오, 나는 통일의 열병광장에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릴
위대한 김정은장군의 병사
꺼꾸리진 적들의 아성을 군화발로 던고
결전의 포연 걷히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향해
원수의 종말을 소리높이 선언하리라!

이 세상 누가 묻거든
내 대답해주마
역적의 씨종자는 불로만 다스려야 하고
가장 귀중한것은 총대로만 얻을수
있음!

분노란 이 손에 잡히는것 모두가
총탄같고 포탄같은 이 땅
내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것이
나와 함께 불덩이로 달아오른
조국수호의 결전전야

이 세상 누가 묻거든
내 대답해주마
역적의 씨종자는 불로만 다스려야 하고
가장 귀중한것은 총대로만 얻을수
있음!

분노란 이 손에 잡히는것 모두가
총탄같고 포탄같은 이 땅
내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것이
나와 함께 불덩이로 달아오른
조국수호의 결전전야

분노의 분화구를 던지자

우리의 아령에
악랄한 도발로 깔질한 놈들
우리의 인내력에
동족대결의 화염으로 도전한 놈들

원썩들이 쓰이던 포탄은
행복과 희망으로 부풀
우리 가슴팍을 향하겠고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를 겨누겠고
우리 삶의 터전을 파헤쳐 버렸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대결광신자들을 짓통개며
한나산으로 단숨에 치달아오를
무비철강들이 발을 구른다
달아오른 총대들이 몸부림친다

오, 열혈의 청춘들이
입대청원서에 총탄같은 수포를 한다
아들과 남편과 애인을 최전선에 세운
이 나라 너인들도 그들곁에 세워주길
타래째 호소한다

우리의 물도 없는 생명인
조국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며
우리의 살점인 신성한 내 나라 강토에
함부로 무모하게 불뿔을 날린
전쟁미치광이들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까지

천주에 용납 못할 로골적인 침략전쟁책동을 규탄한다

해 외 동 포 단 체 들 성 명 발 표

당의 천주에 용납 못할 로골적
인 침략전쟁책동을 오사까부의
전체 총연일군들과 제일동료들의
치사는 민족적분열을 한데
모아 결렬히 규탄한다고 단계는
밝혔다.

단체는 미국이 남조선괴뢰군
부호진광들을 시켜 사상 류예
없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
행해나섬으로써 저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고 조
선반도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
국면,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
는 침략행위를 세계를 더욱 로
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단격하
였다.

본파한 일군들과 동료들은
백전 백승의 천송령장이신
정세에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적
분열의 선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조국인민들과 함께 팔자구 주
조국을 결렬히 옹위하여 싸우나
갈것이라고 단계는 강조하였다.

* * *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
세야고통련)가 21일 《조선반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전격적
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정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제정조선인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이 공화국의 엄정경고
를 명심하고 《을지 프리덤 가
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
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
하였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미국의 침
략대상으로부터 미증유의 대미
분노심과 보복열기로 미분토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기지
로 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비
롯하여 세계가 알지 못하는 현
대적인 최첨단공격력 방어수단
을 다 갖춘 필승공세의 최강국
이다.

공화국의 선의와 아량이 담긴
모든 평화적발타와 제안에 극도
대적인 최첨단공격력으로 대담하
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
민족적이며 반동원적이며 반정

화적인 전쟁광판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백두의 천송령장이신 정세에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제정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제정조선인들은 온 겨레와 함께
미제와 괴뢰적대결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을 거부하며
대결과 전쟁행위를 즉시중지하
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
호하기 위한 전면전쟁, 정의의
통일애국성전에 한사칼같이 떨
쳐나설것이다.

* * *
총련본부 상임위원회가 22
일 성명문을 발표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남조선괴뢰들이 강화하고있는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단격하였다.

총련 도교도본부 상임위원회
는 온 민족이 조국해방 70돐을
계기로 하여백두의 조국의 자주
정통통일을 이룩하고야말 의지
를 더욱 깊이 가다듬고있는 때

침한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넣은 박
근혜역도와 괴뢰군부호진광들
을 존렬히 단격하며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로골적인 침략전쟁
행위인 심리전방송을 당장 중
지하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풀
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단
계를 밝혔다.

단체는 괴뢰들이 아무리 민족
대결소동에 판분하여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백사의 흐름을
역행시키지 못하며 저들의 야망
을 실현할수 없을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총련 오사까부본부 상임위원
회는 괴뢰군부호진광들이 미국
의 지령에 따라 《북포탄발사》
사건을 조작해내고 이를 구실로
공화국의 신성한 영토를 무자막
지한 포사격을 가한것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도
발행위라고 단격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파리는 온
겨레를 기어이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괴뢰

당의 천주에 용납 못할 로골적
인 침략전쟁책동을 오사까부의
전체 총연일군들과 제일동료들의
치사는 민족적분열을 한데
모아 결렬히 규탄한다고 단계는
밝혔다.

단체는 미국이 남조선괴뢰군
부호진광들을 시켜 사상 류예
없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
행해나섬으로써 저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고 조
선반도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
국면,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
는 침략행위를 세계를 더욱 로
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단격하
였다.

본파한 일군들과 동료들은
백전 백승의 천송령장이신
정세에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적
분열의 선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조국인민들과 함께 팔자구 주
조국을 결렬히 옹위하여 싸우나
갈것이라고 단계는 강조하였다.

* * *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
세야고통련)가 21일 《조선반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전격적
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정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제정조선인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이 공화국의 엄정경고
를 명심하고 《을지 프리덤 가
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
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
하였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미국의 침
략대상으로부터 미증유의 대미
분노심과 보복열기로 미분토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기지
로 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비
롯하여 세계가 알지 못하는 현
대적인 최첨단공격력 방어수단
을 다 갖춘 필승공세의 최강국
이다.

공화국의 선의와 아량이 담긴
모든 평화적발타와 제안에 극도
대적인 최첨단공격력으로 대담하
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
민족적이며 반동원적이며 반정

제정조선인총련합회와 미제
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판관
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북
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19
일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
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괴
뢰들이 17일부터 공화국을 반대
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전
쟁연습을 강화하고있다고 단격
하였다.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합동군사연습은 미제의
남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
정책과 그에 발맞추어 추종해나
선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동
족대결책동에 따라 고안된 북
침전쟁연습이라고 성명은 규
탄하였다.

성명은 더욱이 이번에도 강화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은 《승리부채기》와
《량양정명》을 작전임무로 하
는 《한》 미련합사단과 또 모든
침략전쟁수단들이 투입되고 모
든 작전지휘소들이 전개된 상태
에서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노리고있다는데 그
업중심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전쟁광신자들의 무모
한 북침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원
칙적립장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전격적
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정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제정조선인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이 공화국의 엄정경고
를 명심하고 《을지 프리덤 가
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
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
하였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미국의 침
략대상으로부터 미증유의 대미
분노심과 보복열기로 미분토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기지
로 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비
롯하여 세계가 알지 못하는 현
대적인 최첨단공격력 방어수단
을 다 갖춘 필승공세의 최강국
이다.

공화국의 선의와 아량이 담긴
모든 평화적발타와 제안에 극도
대적인 최첨단공격력으로 대담하
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
민족적이며 반동원적이며 반정

화적인 전쟁광판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백두의 천송령장이신 정세에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제정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제정조선인들은 온 겨레와 함께
미제와 괴뢰적대결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을 거부하며
대결과 전쟁행위를 즉시중지하
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
호하기 위한 전면전쟁, 정의의
통일애국성전에 한사칼같이 떨
쳐나설것이다.

* * *
총련본부 상임위원회가 22
일 성명문을 발표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남조선괴뢰들이 강화하고있는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단격하였다.

총련 도교도본부 상임위원회
는 온 민족이 조국해방 70돐을
계기로 하여백두의 조국의 자주
정통통일을 이룩하고야말 의지
를 더욱 깊이 가다듬고있는 때

침한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넣은 박
근혜역도와 괴뢰군부호진광들
을 존렬히 단격하며 공화국을
겨냥한 가장 로골적인 침략전쟁
행위인 심리전방송을 당장 중
지하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풀
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단
계를 밝혔다.

단체는 괴뢰들이 아무리 민족
대결소동에 판분하여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백사의 흐름을
역행시키지 못하며 저들의 야망
을 실현할수 없을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총련 오사까부본부 상임위원
회는 괴뢰군부호진광들이 미국
의 지령에 따라 《북포탄발사》
사건을 조작해내고 이를 구실로
공화국의 신성한 영토를 무자막
지한 포사격을 가한것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도
발행위라고 단격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파리는 온
겨레를 기어이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괴뢰

당의 천주에 용납 못할 로골적
인 침략전쟁책동을 오사까부의
전체 총연일군들과 제일동료들의
치사는 민족적분열을 한데
모아 결렬히 규탄한다고 단계는
밝혔다.

단체는 미국이 남조선괴뢰군
부호진광들을 시켜 사상 류예
없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
행해나섬으로써 저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고 조
선반도정세를 위기일발의 폭발
국면,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
는 침략행위를 세계를 더욱 로
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단격하
였다.

본파한 일군들과 동료들은
백전 백승의 천송령장이신
정세에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적
분열의 선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조국인민들과 함께 팔자구 주
조국을 결렬히 옹위하여 싸우나
갈것이라고 단계는 강조하였다.

* * *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
세야고통련)가 21일 《조선반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전격적
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정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제정조선인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이 공화국의 엄정경고
를 명심하고 《을지 프리덤 가
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
지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
하였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미국의 침
략대상으로부터 미증유의 대미
분노심과 보복열기로 미분토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기지
로 되었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비
롯하여 세계가 알지 못하는 현
대적인 최첨단공격력 방어수

